

# 장흥군 귀어자·원주민 '어촌계 가입' 갈등

장흥 등 전남지역 어촌마을에서 어촌계 가입을 놓고 귀어·귀촌인과 원주민간 갈등이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양수산부(해수부)가 기존 어촌계에 모든 우선권을 부여해 놓고도 도시민의 귀어·귀촌을 적극 유도하는 등 이중적 행정을 펼쳐 어촌마을 주민의 갈등을 되레 부추기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해수부는 어촌마을을 노령화 해소와 청년 일자리 창출, 도시지역과 어촌마을간 인력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귀어·귀촌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21일 장흥지역 어촌마을 주민 등에 따르면 도시민의 귀어·귀촌 인구 증가와 함께 어촌마을 수의 창출의 필요요건인 어촌

2011년 이후 330명 귀어 가입비 최대 3000만원 달해 해수부 귀어정책 개선 여론

계 가입 경쟁이 치열하다. 일부 어촌마을에서는 어촌계 가입이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도시민들의 귀어귀촌 인구가 부쩍 늘고 있다. 장흥지역의 경우 지난 2011년 이후 지난 해까지 총 귀농귀촌인구 588명 가운데 귀어귀촌 인구는 56%에 해당하는 330명에 이른다.

어촌마을별로 사정이 다르긴 하지만, 장흥지역 어촌계에 새로 가입하려면 5년 이상 마을 거주자에 한해 최소 500만원에서 3000만원의 가입비를 내야한다. 해당 어촌마을의 소득이 높을수록 가입비도 높다.

이 때문에 귀어귀촌인과 원주민간 어촌계 가입을 둘러싼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귀어·귀촌자들은 가입조건을 놓고 지난해 '덧새'라는 입장인 반면 어촌계 원주민들은 공동체 유지를 위한 규칙이라고 맞서고 있다.

실제 대부분 어촌계는 신규 회원이 들어오면 한정된 어장을 배분해야하고 소득원도 줄어들기 때문에 어촌계 가입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촌마을의 노령화 등을

막기 위한 '귀어귀촌' 활성화를 이유로 어촌계측에 가입 문호 개방을 권유하고 있지만, 어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재산권이 걸려 있다는 점에서 되레 원주민과 귀어·귀촌간 갈등만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장흥군 관계자는 "정부(해수부)에서 바다면허를 허가제(평가 관리제)로 전환하고, 재산권 개념을 주지 않는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한편 어촌계 설립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10명 이상이 발기인 구성을 통해 정관을 만든 뒤 해당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장흥군에는 현재 42개 어촌계(회원 2208명)가 구성돼 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장흥지역민들이 군에서 운영하는 '치과이동진료 버스'에서 치과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

## 장흥군 치과이동진료 누적 치료 2만명 돌파 2005년 도입 10년만에... 올해부터 진료서비스 확대

장흥군이 전남 최초로 도입한 '치과이동진료서비스'가 운영 10년째를 맞아 누적 치료 2만명을 넘어서는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장흥군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전남에서 처음으로 45인승 치과이동진료서비스 버스를 도입한 장흥군은 첫 해에만 2752명의 환자를 치료했으며,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치료인원은 2만명을 넘어섰다.

올해부터는 작은 마을 단위까지 찾아가는 구강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5인승 버스로 교체하는 등 치과이동진료서비스를 확대·운영하고 있다. 특히 새로 도입한 차량은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리프트 시설 등도 갖추고 있다.

치과 내에서는 구강검사, 치주 치료, 스케일링, 불소도포, 초기 우식치료, 틀니 초음파 세척 등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노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강관리 개인 교육을 하는 등 구강위생관리 습관화를 유도하는 시책도 병행하고 있다.

오는 3월부터는 10개 초등학교 552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구강관리 생활습관 교육과 구강진료를 연중 실시할 방침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치과이동진료서비스를 통해 치과가 없는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구강건강교육을 통해 생활습관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 영암군 영양플러스사업 영유아 등 80여명 모집

영암군은 21일 "취약계층 임신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2016년도 상반기 영양플러스사업 신규 대상자 80여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중위소득 80%미만에 해당해야하며, 영암군에 거주하는 임신부와 5개월 미만 영아를 둔 수유부, 65개월 미만 영유아로 빈혈, 성장부진, 저체중, 영양섭취 불량 중 1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4월부터 매월 2회씩 맞춤형 보충식품을 배송받게 된다. 한 매월 영양교육과 개인 상담을 통해 스스로 식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고, 영양평가 등의 서비스도 제공받는다.

접수방법은 주민등록번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동차보험증권, 산모수첩 등 해당서류를 지참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영암군 보건소는 3월 7일부터 9일 3일간이며, 삼호보건지소는 3월 10~11일이다. 자세한 영암군 보건소 영양실(061-470-6553)이나 삼호보건지소(061-470-2671)로 문의하면 된다.

/영암=문병성기자 moon@



장흥 무산김 수확 체험 김성(왼쪽 두번째) 장흥군수가 최근 회진면 신덕마을을 방문해 무산김 채취 등 어민들의 삶을 체험했다. 김 군수는 마을 앞 바다 양식장에서 김 원초를 수확하고 이를 운반하는 작업에 참여했으며, 지역 어민의 불편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는 시간도 가졌다. <장흥군 제공>

## 강진군 방조제 개·보수 국비 120억 확보

사내방조제 재정비 4월 착수

강진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초부터 대규모 국비 확보에 성공하는 등 큰 성과를 내고 있다.

강진군은 21일 "최근 관내 방조제 개수와 보수 관련사업에 국비 120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강진군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높아짐에 따라 태풍·해일 등에 대한 재해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국비 120억 원을 확보했으며, 강진군 신전면 사내 방조제를 재정비할 수 있게 됐다.

서남해안 간척사업의 하나로 조성된 사내방조제는 태풍, 해일 등 자연재해에 따라 매년 수천만원의 유지보수비가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방조제 지반 침하, 바다쪽 물높이 변화, 방조제 곳곳에서 함몰이 확인돼 방조제 사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면적인 관리와 보수가 절실했다. 이에 따라 강진군은 방조제 개·보수사업비 반영을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사업비 확보라는 결실을 맺었다.

이번 사업은 오는 4월 2억원을 투입해 실시계획을 하고 설계설명회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특히 국비 100%사업으로 군비 부담이 전혀 없어 군 예산 절감 및 재정력 강화로 현안사업 성공추진에 큰 힘을 보탬 수 있게 됐다. 국비 확보에는 강진원 강진군수의 국비 세일즈가 큰 몫을 했다는 평가다.

강 군수는 열악한 재정지출에도 자체 재원으로는 신규사업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파악하고 일찌감치 국비 확보에 주력해 왔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앞으로도 공모사업 등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군민들이 행복한 강진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 강진군 초록민음직거래센터 '공공기관 상품브랜드' 대상

강진 초록민음직거래지원센터가 '공공기관 상품브랜드' 부문 대상을 수상(사진)했다.

강진군은 "서울 사이버대 차이코프스키홀에서 지난 18일 열린 제21회 베스트 브랜드 패키지 어워드 코리아 대상 시상식에서 초록민음직거래지원센터가 '공공기관 상품브랜드' 부문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는 1995년부터 상품문화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창의력과 융합이 돋보이는 브랜드를 선정하여 매년 시상하고 있다.

초록민음은 강진군 농수특산물 대표 브랜드로 태백 직거래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좋은 만남, 도시와 농촌의 신뢰를 키우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소비자 신뢰 확보와 농어업인의 직거래 참여를 돕기 위해 홍보 판촉활동과 마케팅



교육, 맞춤형 지원사업 및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강진군은 전국 최초로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초록민음 직거래 지원센터'를 설립했으며 새로운 유통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 투데이 경매 부동산 경공매 추천물건

- 광주 광산구 우산동 숙박시설**  
무진대로면 상업지대 위치 지하 1층 ~ 지상 5층  
대지 491㎡ 건물 1,468㎡  
감정가 11억 3천  
최저가 7억 9천
- 광주 서구 능성동 상가주택**  
건강 관리협회 사거리에서 유니버시아드힐스테이트 방향 도로접 2층 상가주택  
대지 135㎡ 건물 146㎡  
감정가 2억 최저가 2억
- 광주 북구 두암동 상가주택**  
두암초등학교 인근 도로인접 지하 1층 ~ 지상 4층  
대지 145㎡ 건물 475㎡  
감정가 3억 5천  
최저가 2억 4천
- 광주 서구 풍암동 빌라**  
풍암동 한국아메리칸 정문앞 3층 127기  
대지 247㎡ 건물 421㎡  
감정가 5억 2천  
최저가 3억 6천
- 전남 나주시 경현동 연구시설**  
대지 1,488㎡ 건물 627㎡  
지하 1층 ~ 지상 3층  
감정가 30억  
최저가 13억 7천

**투데이옥션 이현석**  
010-9963-6345

### 한국토지경매학원 개원

업계 최고 경매 전문 컨설턴트와 현직 CEO로 구성된 교수진으로 건전한 경매문화를 선도하고자 한국토지경매학원을 개원합니다. 경매와 부동산 재테크 전반에 관하여 확실한 '눈'을 뜨게 해드리겠습니다. Time is money. 시간은 곧 '돈'입니다. 경매 완전 초보에서 실전 투자까지 1개월 내에 비법을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오셔서 기회를 잡으십시오.

**개강 : 3월 3일(목)**

• 시간  
오전반 화·목 10:00~12:00  
오후반 화·목 19:00~21:00  
주말반 토·일 14:00~16:00

• 장소 : 광동로터리 한국토지경매 4층(지하철 문화당역 5분)  
• 과목 : 실전경매(1개월 완성)  
• 교수진  
한국토지경매연구원장 김광민 ㈜Today 옥션 소장 이은진  
한국토지경매(주) 대표 이용국 다와하프경매(주) 대표 한길  
㈜다와옥션 대표 김현미 다와하프경매연구원장 유선자

건전한 경매문화를 선도하는  
**한국토지경매학원**  
☎ 232-9994

### 20년 전 통 (주)호남경매 법원경매 이달의 추천물건

- 전북 고창군 대지2,520평 건물123평 양어장  
▶감정가27억2천 최저가9억3천 (감정가의34%)
- 서구 마름동 1중주거지역 토지202평 도로접 시세차의 위치.투자수익기대 ▶거래가4억8천만원
- 해남군 산이면 대지 262평 주거개발진흥지구 면사무소인근 ▶감정가2억 최저가1천 (감정가의56%)
- 무안군 현경면 건물48평 토지318평 전원주택추천 마을회관인근 ▶감정가3천5백 최저가2천2백 (감정가의64%)
- 북구 중흥동 단독주택 건물51평 토지46평 ▶감정가2천2백 최저가8천6백(감정가의70%)

### 병원, 사옥, 상가, 대지, 창고부지 매매

- 서구 쌍촌동 숙박시설 쌍촌역인근 지하1층~5층 건물 365평 대지 90평 방37개 ▶감정가 12억3천 최저가 7억
- 화순군 화순읍 건물86평 대지211평 고급전원주택 위치좋은 ▶감정가4억4천 최저가3억1천 (감정가의70%)
- 광산구 월계동 다가구주택 방15개 투자수익남부대 방통대인근 ▶감정가5억2천 최저가1억9천 (감정가의36%)
- 서구 양동 건물425평 대지175평 숙박시설 방40개 지하1층~지상5층 ▶감정가11억 최저가6억 (감정가의56%)

(주)호남경매 김용희 이사  
**010-7147-4989**

### ★ 4성급 ★ 호텔건물매매

현재 노인요양시설 허가 취득

- 엘리베이터 설치 및 리모델링공사 완료
- 목포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위치
- 4성급호텔, 노인병원 등 즉시 사업가능 (커미션은 휴업중)
- 주차장 및 부속상가 건물 3층

건물연면적 7,091㎡ (2,149평)  
토지면적 3,478㎡ (1,054평)

- 매매가격 상당 후 결정
- 현장 답사 요망

목포시 대동동 2가 1-9번지의 3필지(지상 9층 지하 1층)  
연락처 061-242-7782, 010-9868-5151